

## 커뮤니케이션 요인과 스포츠 활동이 청소년 전기(early adolescence)의 반사회적 행위 (antisocial behavior)에 미치는 영향\*

김남수\*\* · 민영\*\*\*

###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 전기의 반사회적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환경 요인 중, 커뮤니케이션과 스포츠 요인에 주목하고 이들이 폭력 행위나 지위 일탈 행위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탐구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03년부터 5차에 걸쳐 실시한 중학교 2학년 대상 패널조사 중 1차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첫째, 커뮤니케이션 요인 중,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또래 위험청소년들과의 상호작용은 위험요인으로 폭력 행동이나 지위 일탈 행동을 증가시킨 반면,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은 반사회적 행위 전반에 걸쳐 강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여가를 가장 많이 지배하는 디지털 미디어의 이용은 지위 일탈 행위와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특히 의사소통 목적의 인터넷 이용과 휴대전화 이용은 음주, 흡연, 결석, 가출 등의 일탈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셋째, 전반적으로 스포츠 요인들의 설명력은 미미했다. 조직된 스포츠 프로그램 참여는 폭력 행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이러한 유형의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이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데에 있어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주제어 : 청소년 전기, 반사회적 행위, 위험요인, 보호요인, 디지털 미디어 이용, 대인 커뮤니케이션, 또래 위험청소년, 부모 커뮤니케이션, 스포츠 활동

\*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패널조사 중 <중2 패널>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2009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스포츠레저학부 조교수, cowinmin@hotmail.com

\*\*\* 고려대학교 언론학부 조교수, 교신저자, ymin@korea.ac.kr

## I. 서 론

생애 주기에서 청소년기는 대략 10세에서 20세 사이의 연령대를 포괄하며 질풍노도의 시기라 불릴 만큼 매우 감정적이면서 기존 질서와 규범에 도전적인 성향을 띠게 된다(Garrison, 1965). 그러나 이와 동시에 청소년들은 사회와 학교로부터 성인에 비해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고 입시 준비로 인한 과중한 학업 부담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다양한 갈등과 긴장을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이것이 폭력이나 일탈 행위로 표출된다(Agnew, 1992, 2001; Brezina, Piquero, & Mazerolle, 2001). 물론 모든 청소년들이 폭력이나 일탈 행위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은 가정, 학교, 종교 활동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안적인 문제 해결법을 습득함으로써 반사회적 행동성향을 억제하게 된다(Wallace & Forman, 1998). 따라서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risk factors)과 보호 요인들(protective factors)을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Elliott, Hamburg, & Williams, 1998; Farrington, 1996; Ferrer-Wreder, Stattin, Lorente, Tubman, & Adamson, 2004).

한편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폭력(violence)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매우 다층적이고 복잡한 현상을 지칭한다. 폭력은 다양한 형태를 띠는데 물리적 힘 자체나 그를 이용한 위협 행위, 무기의 사용, 재산의 파손, 집단 폭력 등이 그 주요 형태이다(Futrell, 1996; Howard, Flora, & Griffin, 1999). 이러한 물리적 유형 외에도 언어적 혹은 심리적 유형 역시 광범위한 의미에서 폭력 행위로 이해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언어적이거나 심리적 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폭력뿐 아니라 포괄적인 일탈 행위 모두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반사회적 행위(antisocial behavior)라는 개념을 제시할 수 있다. 반사회적 행위란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거나 불법적인 행위” 전반을 포함하는 것이다(McWhirter, McWhirter, McWhirter, & McWhirter, 2004, p. 157). 더 구체적으로 청소년기의 반사회적 행위란 그들의 지위에 걸 맞는 다양한 규범적 요구들에 대한 위반 행위를 의미하는데, 무단결석, 지각, 흡연, 음주 등과 함께 앞서 거론한 다양한 폭력 행위를 꼽을 수 있겠다. 이 논문은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위를 중요한 사회문제로 바라보고 그것에 기여하는 요인들을 밝힘으로써, 이 문제에 대

한 바람직한 해결 대안을 도출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다양한 위험 혹은 보호 요인들 중, 청소년들의 여가 활용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요인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공교육이나 사교육과 관련된 활동에 투여하기 때문에, 이 외의 시간에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그들의 반사회적 행동 경향과 밀접히 관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강효민(2004)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2,090명의 고등학생들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인터넷 이용과 스포츠 활동이 여가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이미리(2007)에 따르면, 중학생들의 경우 남녀를 막론하고 텔레비전 시청과 컴퓨터 게임에 가장 많은 여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은 또래 친구들이나 가족들과의 상호작용과 병행된다(Mahoney & Statin, 2000; Zeijl, te Poel, du Bois-Reymond, Ravesloot, & Meulman, 2000). 실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중학교 1학년 대상 패널조사(1차년도)에 따르면, 이들이 여가를 함께 보내는 가장 주된 대상은 평일의 경우 동성 친구였으며(34.6%), 휴일의 경우는 가족으로 나타났다(41.1%).

그렇다면 청소년의 여가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 요인과 스포츠 활동은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가? 먼저 커뮤니케이션 요인은 미디어 이용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 이용의 영향력과 관련해서, 선행 연구들은 텔레비전의 폭력적 콘텐츠를 가장 대표적인 위험 요인으로 제시해 왔다(Anderson et al., 2003; Bandura, 2002; Holbrook & Hill, 2005; Smith, Nathanson, & Wilson, 2002). 그러나 커쉬(Kirsh, 2006)가 적시했듯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영향력은 발달단계(developmental stages)에 따라 상이해진다. 특히 공격적인 인지적, 감정적 요소가 급속히 증가하는 초기 청소년기(만 12세~14세)에는 폭력적 온·오프라인 게임이 텔레비전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현재의 청소년 세대를 표현하는 디지털세대, N세대, 2.0세대 등의 용어가 암시하듯(배규한·이창호, 2008; Tapscott, 1998), 청소년들의 커뮤니케이션은 거의 대부분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의 디지털 미디어에 의해 매개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미디어 이용과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위 간의 관계에 대해 학문적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겠다.

한편 청소년들은 여가 시간을 또래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보내기 때문에, 또래들과

의 상호작용이나 가족, 특히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일탈 행위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이미 반사회적 행동을 경험한 친구들, 즉 위험 청소년들이 또래 네트워크에 얼마나 존재하는가는 청소년 개인의 문제행동 가능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이성식, 2007). 이에 반해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다른 위험 요인들로부터의 영향력을 여과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Aspy, Oman, Vesely, McLeroy, Rodine, & Marshall, 2004). 본 연구는 또래 친구들이나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요인으로 개념화하고,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 네트워크형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청소년의 다양한 일탈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한편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부모-자녀 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을 동시에 탐색하고자 한다.

앞서 논의했듯이, 청소년의 여가 활동의 또 다른 큰 비중은 스포츠와 건강 활동이다. 국내외적으로 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은 폭력이나 여타 일탈 행위를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인정되어 왔다(민경훈·정훈교, 2001; Hellison & Walsh, 2002; Hellison & Wright, 2003; Watson, Newton, & Kim, 2003). 그러나 한편으로는 운동 선수들의 일탈 행위 정도가 일반인들에 비해 현격하게 높거나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반 청소년들에게 높은 위험 요인들이 관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Cense & Brackenridge, 2001; Croseet, 1999; Garry & Morrissey, 2000; Hoover, 1999). 따라서 스포츠 활동이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결론은 아직까지 잠정적인 것이며, 스포츠와 일탈 행위의 관계를 보다 엄밀하게 설명할 수 있는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스포츠 활동, 특히 여가 시간을 이용한 청소년들의 자발적 스포츠 활동과 조직된 스포츠 프로그램 참여 등이 다양한 반사회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할 때, 본 연구는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위를 촉진시키거나 완화해 줄 수 있는 주요한 두 환경 요인으로 커뮤니케이션과 스포츠 활동을 상정하고 이들이 다양한 형태의 문제 행동들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체계적으로 탐색하려는 시도이다. 발달 심리학자들은 청소년기를 보다 세분화하여 12세에서 14세까지를 전기로, 15세에서 18세까지를 후기로 구분하였다(Samples & Aber, 1998). 이 중 본 연구는 학교 폭력 등 위험 환경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전기 시기인 중학생들에게 주목하고(권이중, 1997),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패널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 II. 이론적 논의

### 1. 커뮤니케이션 요인과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위

가족과 서서히 독립하며 또래와의 관계에 더 의존하려는 청소년기의 특성과 맞물려 청소년들은 텔레비전과 같은 ‘가족형 미디어’보다는 퍼스널 컴퓨터와 같은 ‘개인형 미디어’ 혹은 ‘네트워크형 미디어’를 더 많이 선호하게 된다. 이에 디지털 미디어와 함께 성장해 온 세대적 특성이 결합하여 현재의 청소년들은 여가 활용뿐 아니라 학업을 위해서도 컴퓨터(인터넷)를 높은 비중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10대의 컴퓨터와 인터넷 접근성은 거의 100%를 육박하고 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지만 대표적인 이용 용도는 인터넷 게임, 메신저·채팅·메일 등을 이용한 의사소통, 영화·드라마 시청이나 음악 감상 등 오락 활동 등이다(민영·김성태, 2008). 김근영과 장근영(2007)에 따르면, 과중한 인터넷 이용은 청소년들의 또래관계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우울경향성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간접적으로 컴퓨터 의존도가 높을수록 문제 행동 경향이 높아질 수 있음을 추론케 한다. 또한 등급제 등의 내용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온·오프라인 컴퓨터 게임들이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게임 이용이 청소년들의 잠재적인 폭력적 성향을 점화하거나 그들이 모델링할 수 있는 대상이나 행동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전반적인 컴퓨터 이용과 게임 이용이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여기에 있다.

한편 청소년들이 또래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주된 채널이 인터넷임을 상기할 때, 인터넷을 통해 메신저나 채팅, 이메일을 하거나 게시판, 동호회 활동이 활발할수록 위험 청소년들과 만나거나 또래들과의 상호작용 속에 반사회적 행동 잠재성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휴대전화의 이용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중학생들의 경우 휴대전화 보유 비율이 다소 낮지만, 한국청소년패널조사 200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41%의 중학교 2학년생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고 가장 주된 용도는 문자 메시지 교환이나 친구들과의 통화로 나타났다. 나은영(2005)에 따르면 청소년들에게 있어 휴대전화 일상화의 정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관계적 이용에 치중하는 정도가 높다고 한다. 이렇듯 휴대전화는 청소년들이 또래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성윤숙(2006)은 휴대전화에 의존할수록 휴대전화와 관련된 문제행동(예, 휴대전화를 이용한 집단 괴롭힘, 음란물 발송, 스팸 발송 등)에 관여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관계적 기능을 하는 인터넷 이용이나 휴대전화 이용은 청소년들에게 있어 또래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주된 매개체라 할 수 있는데, 또래 커뮤니케이션은 그 자체로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위와 관련해 가장 주목받아 온 요인들 중 하나이다. 설리만과 피아제의 이론에 따르면, 또래 관계는 동등성에 기초하여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에 대한 특정한 이해, 가치관 및 규범을 공동으로 구축해 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가족과 부모보다도 더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Nathanson, 2001; Samples & Aber, 1998). 또래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은 보호 요인이기보다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는데(Nathanson, 2001; Youniss & Haynie, 1992), 특히 일탈적 또래들과의 관계가 가장 뚜렷한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Farrington, 1996; Kalogerakis, 2003; Samples & Aber, 1998; Warr, 2002). 국내 연구 중 이성식(2007) 역시 문제행동을 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과의 접촉을 반사회적 행위의 가장 중요한 예측 요인으로 제시했는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지위비행 혹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문제행동(흡연, 음주, 결석 등)보다 상대적으로 중대한 문제행동(폭행, 절도, 강도 등)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여타 위험 요인들로부터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보호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 예컨대 부모는 청소년들의 미디어 관련 태도나 이용행동에 영향을 줌으로써 미디어의 잠재적인 부정적 효과를 여과시켜 준다고 알려져 있다(Chaffee, McLeod, & Atkin, 1971; Nathanson, 2001). 박희숙과 하정희(2007)의 연구 역시 부모-자녀 사이의 의사소통이 청소년 개인의 정서통제능력이나 비행을 저지르는 빈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사회지지이론(social support theory)이나 사회통제이론(social control theory)에 따르면, 청소년 폭력이나 일탈행위는 교사, 부모, 기타 존경할만한 성인 등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예방될 수 있다고 한다(Espelage & Swearer, 2003; Hirschi, 1969).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지지(support) 유형이나 애착(bonding)으로서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주목하여, 그 빈도와 그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평가)을 측정하고자 한다. 즉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개방적이면서 그 빈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록 여타 위험 요인들의 영향력을 상쇄(offsetting)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예측하는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위험 요인으로 주목되어 온 컴퓨터(인터넷)와 휴대전화 이용이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한편, 대인 커뮤니케이션 요인들로서 또래 위험 청소년과의 상호작용과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개방적 커뮤니케이션 정도와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등)이 청소년의 다양한 일탈 행동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탐색하려는 것이다.

## 2. 스포츠 활동과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위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스포츠 활동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이용과 함께 청소년들의 여가 시간을 압도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일탈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스포츠의 잠재력에 대해 주목해 온 연구들은, 스포츠를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 보편적 가치와 윤리관을 습득하고 자기 자신을 규제할 수 있는 훈련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바람직한 인격 형성(character building)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Hellison & Walsh, 2002; Hellison & Wright, 2003; Watson, Newton, & Kim, 2003).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비행 경험이 있는 히스패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격투기의 일종인 유도 수련을 실시함으로써 문제 행동을 줄이고 학교 적응력을 현저하게 향상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바 있다(Fleisher & Avelar, 1995). 또한, 1970년대부터 헬리슨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개인-사회 책임모형(the personal-social responsibility model)은 스포츠 참여자들이 체육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삶의 기술과 사회적 가치를 획득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스포츠가 청소년들의 일탈 행동을 줄일 수 있는 도구로서 유용하다고 강조해 왔다(Danish, Petitpas, & Hale, 1995).

물론 모든 학자들이 스포츠의 순기능을 주장해온 것은 아니다. 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가 일탈 행동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연구들 역시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Crosset, 1999; Garry & Morrissey, 2000). 예컨대, 전문 운동선수들의 범죄율은 일반인들의 그것보다 높으며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총기나 무기 소지의

빈도가 높고 신체적 폭력에 연루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Garry & Morrissey, 2000). 또 다른 연구들은 스포츠 내에 존재하는 하위문화가 참여자들의 일탈 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Cense & Brackenridge, 2001; Croseet, 1999; Hoover, 1999). 스포츠 경기 이후 과도한 음주가 조장되거나 스포츠 클럽 가입 시 통과의례로 신체적 폭력이 당연시되는 사례 등을 꼽을 수 있다(King, 2000).

스포츠가 보호 요인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다(Coakley, 2002; Harmann, 2003). 특히 성인 운영자의 리더십 아래 잘 계획되고 구조화된 스포츠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비행을 줄이는 데에 훨씬 효과적이라 알려져 있다(Crabbe, 2000; Mahoney & Stattin, 2000). 반면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발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포츠 활동은 오히려 또래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고 집단행동에 연루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Kim, 2007).

이처럼 스포츠와 반사회적 문제 행동 간의 관계는 복잡하며 논쟁적인 만큼 더 엄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Brewer, Hawkins, Catalano, & Neckerman, 1995; Hartmann, 2003; Smith & Waddington, 2004). 본 연구는 스포츠 참여가 청소년들의 폭력이나 기타 일탈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청소년 체력증진 프로그램 등 스포츠를 매개로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과 여가 시간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포츠 활동의 영향력을 비교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이 설정되었다. 커뮤니케이션 요인과 스포츠 요인의 영향력을 각각 큰 연구문제로 설정하고, 각각에 세부적인 연구 문제들을 추가하였다. 커뮤니케이션 요인은 컴퓨터(인터넷), 컴퓨터 게임, 의사소통 목적의 인터넷, 휴대폰 이용 등 디지털 미디어 이용과 부모 및 또래 위험청소년과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포괄하는 것이다. 반사회적 행위는 폭력 행위와 함께 비폭력 유형의 다양한 일탈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폭력 행위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때리기, 조롱하기, 협박하기, 뺨뜯기, 패싸움, 집단 따돌리기(왕따)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이성식(2007)은 폭력 행위 이외의 일탈 행위를 지위 비행이라 칭하기도 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지위 일탈 행위로 부르고 흡연, 음주, 결석, 가출 등 중학생으로서의 지위에 요구되는 사회적 규범이나 학교 규율 위반 행동을 포괄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연구문제1.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요인들은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1-1.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의 이용은 청소년의 폭력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1-2. 또래 위험청소년 및 부모와의 대인커뮤니케이션은 청소년의 폭력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1-3.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의 이용은 청소년의 지위 일탈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1-4. 또래 위험청소년 및 부모와의 대인커뮤니케이션은 청소년의 지위 일탈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스포츠 활동은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2-1. 자발적인 여가 스포츠 활동과 조직된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청소년의 폭력 행위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2-2. 자발적인 여가 스포츠 활동과 조직된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청소년의 지위 일탈 행위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Ⅲ. 연구방법

#### 1. 2차 자료 분석의 개요

본 연구를 위해 한국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를 2차 분석하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동일 표본을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반복 조사 한 대표적인 종단적 조사 연구로서 그 중 중학교 2학년 패널조사는 2003년에 시작되어 총 5차례 실시되었다. 2003년도에 실시된 1차년도 조사는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을 이용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총 3,697명을 추출하였으며, 이들 청소년들과 그 부모들에 대한 설문은 병행되었다. 중2 패널 조사는 직업선택, 진로설정, 여가 활

용, 일탈 행위 등에 대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수집하였는데, 본 연구는 그 최초 자료이며 반복 측정과 패널 마모(panel attrition)의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1차년도 조사 결과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정기원(2007)이 논의하였듯이 중학교에서 폭력이나 일탈 행동의 정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고 그 영향력이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중2 패널의 1차년도 자료에 초점을 맞추었다. 발달 심리학에 따르면 중학생들은 청소년기의 전기에 해당하며(Samples & Aber, 1998),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폭력 등 위험 환경에 노출될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분석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 2. 주요 변인들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 1) 커뮤니케이션 요인

커뮤니케이션 요인은 미디어 이용과 대인 커뮤니케이션 요인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먼저 청소년 세대의 여가 활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또래 간 의사소통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미디어로서 컴퓨터(인터넷) 이용 정도가 하루 평균 이용시간으로 측정되었다. 조사 대상자들은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약 157분으로 2시간 30분이 넘는 시간을 컴퓨터(인터넷) 이용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의 총 이용량뿐 아니라 컴퓨터(인터넷)의 구체적인 이용 용도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해질 것으로 추정하고, 게임을 하기 위해 컴퓨터(인터넷)를 사용하는 정도와 의사소통을 위해 컴퓨터(인터넷)를 이용하는 정도를 각각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컴퓨터(인터넷)를 이용하는 용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하였는데, 관련 항목들의 요인분석 결과 채팅·메신저, 이메일, 동호회·카페·커뮤니티 활동, 게시판 활동 등이 한 차원으로 묶였다. 따라서 이들 네 항목들을 의사소통적 인터넷 이용이라는 차원으로 개념화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Cronbach  $\alpha = .684$ ). 또 다른 네트워크형 디지털 미디어인 휴대전화 이용 정도의 경우, 휴대전화 보유 여부로 측정하였다. 하루 평균 휴대전화 이용량(분)이 최대 1,100분까지 기록하여 이용 시간에 있어 학생들 내에 편차가 매우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보유한 경우 “1”점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0”점을 부여해 가변인(dummy variable)을 구축하였다. 전체 조사대

상자들의 약 41%가 휴대전화를 보유했다고 응답했으며, 그 주된 용도는 친구들과의 통화나 문자메시지 교환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량

주요 변인들		N	최소 값	최대 값	평균	표준 편차
통제 변인	가정 경제 <sup>a)</sup>	3395	1	5	1.91	.990
	가정 불화	3395	1	5	1.53	.937
	교사와의 관계 <sup>b)</sup>	3363	1	5	1.74	.890
	징계 경험	3423	1	5	1.34	.826
독립 변인	컴퓨터 총 이용량(분)	3411	10	750	157.7	97.1
	컴퓨터(인터넷) 게임	3409	1	5	3.45	1.24
	컴퓨터(인터넷) 의사소통	3404	1	5	3.04	.904
	휴대전화 보유	3449	0	1	N/A	N/A
	부모와 개방 커뮤니케이션	3446	1	5	3.25	.919
	부모와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3447	1	5	3.26	.980
	또래 위험 청소년	3111	0	10	1.19	2.31
	자발적 여가 스포츠 활동	3449	0	4	0.27	.619
	스포츠 프로그램 참여	3449	0	1	N/A	N/A
	종속 변인	폭력 행위	3449	0	6	0.53
지위 일탈 행위		3449	0	4	0.53	0.84

주: a) 높은 점수일수록 가정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의미한다.

b) 높은 점수일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편 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또래와의 커뮤니케이션 정도가 직접 측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래 중 위험 행동을 이미 경험한 청소년들의 규모를 산출하여 이를 또래 위험청소년과의 커뮤니케이션 정도를 나타내는 대체 변인으로 활용하였다. 이는 또래 위험청소년들의 규모가 클수록 그들과 상호작용하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는 추론에 바탕을 둔 것이다. 또래 위험청소년은 다양한 형태의 폭력적 혹은 지위 일탈 행위를 해 본 적이 있는 청소년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조작적 정의되었다. 구체적으로 지난 1년간 남을 때리기,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기, 술 마시기, 담배 피우기, 무단결석 등의 행동을 한 적이 있는 친구의 수를 절대 값으로 측정한 후 전체를 합산하였다. 이

결과 또래 위험청소년들은 최소 0명, 최대 100명의 범위로 나타났는데, 왜도와 첨도를 기준으로 분포의 정상성(normality)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상위 10% 내외의 아웃라이어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중학생들은 평균 1.19명꼴로 위험 청소년들을 또래 친구로 두고 있었다(〈표 1〉참조).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 정도와 그에 대한 주관적 평가 혹은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패널조사 자료 중, 부모와의 개방적 커뮤니케이션 빈도를 측정할 지표들을 활용했다. 구체적으로 각각 5점 척도로 측정된 “부모와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정도,” “자신의 생각이나 일들을 부모님께 이야기하는 정도,” 그리고 “부모와 대화를 나누는 정도” 등을 합하여 하나의 변인으로 구축하였다(Cronbach  $\alpha = .814$ ). 또한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청소년의 개인적 만족/불만족도를 나타내는 변인을 구축하기 위해 “부모와의 의견충돌로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와 “부모와 대화가 안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를 각각 측정할 문항들을 활용하였다(Cronbach  $\alpha = .788$ ).

## 2) 스포츠 활동 요인

스포츠 참여가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은 스포츠 활동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먼저, 체계적으로 조직된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하여 지난 1년간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의 일환인 체력증진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측정하여 이를 가변인으로 구축하였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별 프로그램 형태의 「청소년 체력교실」을 전국적으로 365개 개설, 운영하여 체육 과외활동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청소년백서, 2002), 이러한 프로그램을 조직된 스포츠 활동의 일환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응답자들의 약 40%가 1회 이상 참여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0”점을, 참여한 학생들에게 “1”점을 부여하였다(〈표 1〉 참조).

다음으로는 여가 시간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평일과 휴일 여가를 이용하는 방식에 대한 개방형 답변들을 활용하였다. 평일과 휴일 여가를 이용해 무엇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는 각각 세 개씩의 답변을 제시했기 때문에, 총 6개의 관련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여가를 활용하는 방식이 스포츠 활동과 관련되는 경우 1점을, 그렇지 않은 경우 0점을 줌으로써 총 6개의 가변인을

구축했고, 이를 합하여 여가 스포츠 활동이라 지칭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이 여가를 활용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을 지칭하며, 이에 축구, 야구, 농구 등 집단 스포츠에서부터 테니스, 인라인스케이트, 헬스, 자전거타기, 태권도, 검도 등 개인적이거나 소규모의 스포츠까지 다양한 형태가 포함되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여가 스포츠 활동은 0점에서 6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는 변인으로 구축된 것이나, 실제 최소값은 0점, 최대값은 4점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 3)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위

선행연구에 기초해서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위를 폭력적 행위와 지위 일탈 행위로 분류했다(이성식, 2007). 폭력 행위는 물리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을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청소년패널조사에서 측정한 다양한 문제행동 중 지난 1년 동안 때리기, 조롱하기, 협박하기, 패싸움, 집단 따돌리기, 남의 물건 빼앗기(뺨뜯기) 등의 행위를 가해자로서 경험한 정도를 합하여 변인을 구축하였다. 각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경우 “1”점을, 그렇지 않을 경우 “0”점을 부여했기 때문에 폭력 행위는 최소 “0”점, 최대 “6”점의 이론적 범위를 가졌다. 조사 대상인 중학생 2학년들은 지난 1년 동안 평균 0.53회 꼴로 이러한 행위에 가해자로서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위 일탈 행위는 폭력적 행동과 명시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지만 사회 규범이나 학교 규율을 위반한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패널조사에서 측정한 흡연, 음주, 무단결석, 기출 등 총 4개의 문제 행동을 지난 1년간 실제 해 본적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였는데, 경험한 적이 있을 경우 “1”점을, 그렇지 않을 경우 “0”점을 부여했다. 그 결과 최소 “0”점, 최대 “4”점의 이론적 범위를 가지는 지위 일탈 변인이 구축되었고, 중학교 2학년생들은 1년 평균 0.53회 꼴로 이러한 유형의 문제 행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 4)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주는 통제변인으로서 가정불화(Patterson, DeBaryshe, & Ramsey, 1989), 교사와의 관계(Hawkins, Farrington, &

Catalano, 1998), 그리고 가정경제의 어려움(Haveman & Wolfe, 1994; McWhirter et al., 2004) 등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요인들과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위 간의 관계는 사회지지이론(Espelage & Swearer, 2003; Hupcey, 1998), 일반긴장이론(Agnew, 1992, 2001), 또는 사회통제이론(Hirschi, 1969) 등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예를 들어, 가정불화가 발생하거나 학교 선생님들과 부정적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청소년의 중요한 사회적 지지 기반이나 사회적 관계가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반사회적 행동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Espelage & Swearer, 2003; Gottfredson & Gottfredson, 1985; Hirschi, 1969). 또한 일반긴장이론에서 설명하듯, 어려운 가정 경제 환경은 청소년에게 긴장과 마찰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폭력이나 기타 일탈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경험적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Agnew 1992; 2001). 따라서 본 연구는 패널조사 자료 중 가정불화로 어려움을 겪는 정도, 교사들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한 정도, 그리고 가정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정도 등을 채택하여, 사회적 지지가 충족 혹은 결핍된 정도와 청소년 개인에게 존재할 수 있는 긴장 정도를 통제하고자 했다. 이에 더하여 과거에 비행으로 학교에서 경고나 징계를 받은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해 과거 행동의 효과를 통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별 역시 통제변인의 하나로 포함시켰는데, 이는 폭력적인 반사회적 행위의 경우 남학생들에게 훨씬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들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가운데, 커뮤니케이션과 스포츠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으며,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는 관찰되지 않았다.

## IV. 연구 결과

### 1. 커뮤니케이션 요인과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위

〈연구문제1〉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요인들이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설정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때리기, 뺨 뜨기, 조롱하기, 협박하기, 패싸움, 집단 따돌리기(왕따) 등의 행동 유형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된 폭력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자. 통제변인들 중

에는 성별의 효과가 두드러져서 남자 중학생들의 폭력 경험이 여자 중학생들의 경험보다 월등히 높았음을 알 수 있었고,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수록 그리고 학교에서 경고나 징계 경험이 있을수록 지난 1년 간 폭력 행위 경험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의 미디어 이용은 전반적으로 폭력 행위에 미미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연구문제 1-1), 대인 커뮤니케이션 요인들은 유의미한 수준의 효과를 보였다(연구문제 1-2). 특히 또래 위험 청소년의 수가 많을수록 폭력적 행동을 하는 경향이 높아졌는데, 이는 위험 행동을 이미 경험한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이 폭력적 반사회적 행위에 관여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부모와의 대화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폭력적 행동 수치가 낮아져,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청소년 개인의 주관적 평가가 문제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2〉 커뮤니케이션과 스포츠 요인이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종속변수	반사회적 행위	
			폭력 행위	지위 이탈 행위
통제 변인	성별 (여성=1)		-.087c***	.063**
	가정 경제상황a)		.031	.000
	가정불화		.003	.078***
	교사와의 관계b)		.060**	.025
	학교 징계 경험		.248***	.172***
	$\Delta R^2$		.121***	.122***
커뮤니 케이션 요인	컴퓨터 총 이용량		.019	.056**
	컴퓨터(인터넷) 게임		.027	.014
	컴퓨터(인터넷) 의사소통		.030	.082***
	휴대전화 보유		-.005	.037*
	또래 위험 청소년		.196***	.357***
	부모와의 개방적 커뮤니케이션		.025	-.039*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078***	-.071***
$\Delta R^2$		.047***	.156***	
스포츠 요인	자발적 여가 스포츠 활동		.007	.017
	스포츠 프로그램 참여		.044**	-.017
$\Delta R^2$		.002*	.001	
모델 요약	수정된 R <sup>2</sup>		.166	.279
	분산분석		F = 42.43***	F = 80.35***

주: a) 높은 점수일수록 가정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의미한다.  
 b) 높은 점수일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c) 표준회귀계수(Beta); n = 3,120;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지위 일탈 행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흡연, 음주, 결석, 가출 등 폭력적이지는 않지만 청소년의 지위에 합당한 규범적 기대나 교칙을 위반한 일탈 행위에 미디어 이용과 대인 커뮤니케이션 요인들이 상당한 효과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롭게도 폭력적 행위와는 달리 지위 일탈 행위는 여자 중학생들에게서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가정불화 정도, 학교 선생님들과의 원만하지 않은 관계 등 필요한 사회적 지지가 결핍되어 있을수록 이러한 일탈 행동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존에 문제 행동으로 경고나 징계를 받은 경험 역시 일탈 행동을 가늠 짓는 중요한 예측 요인이었다. 이와 같은 변인들의 효과를 통제한 이후에도, 온오프라인 게임을 제외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은 지위 일탈 행동과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연구문제 1-3). 컴퓨터(인터넷) 총 이용량뿐 아니라 의사소통이나 네트워킹을 위해 가상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을수록 일탈 행동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들에게서 지위 일탈 행동의 빈도가 더 높게 관찰되었다.

대인 커뮤니케이션 요인들 역시 지위 일탈 행위에 대해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력을 나타냈다(연구문제 1-4). 먼저 또래 네트워크 내에 문제행동 경험자 수가 많을수록 해당 청소년의 지위 일탈 경향도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또래 커뮤니케이션이 반사회적 행위를 촉진할 수 있는 위험요인임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것이다. 반면 부모와의 개방적 커뮤니케이션과 그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는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위와 부정적 관계를 보였다. 즉 부모와 허물없이, 자신의 일과 생각을 자주 이야기할수록 각종 지위 일탈 행동은 상당히 완화되었으며,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적을수록 일탈 가능성은 감소하였다.

〈연구문제1〉에 대한 결과를 종합할 때, 먼저 컴퓨터(인터넷)와 휴대전화로 대표되는 디지털 미디어의 위험 효과는 폭력 행위가 아닌 지위 일탈 행위에 대해서만 확인되었으며, 콘텐츠의 폭력성과 선정성을 전제로 한 온오프라인 게임의 부정적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둘째, 또래 네트워크 내에 위험청소년 수가 많을수록 그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기회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그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또래 위험 청소년과의 상호작용은 반사회적 행위에 기여하는 중요한 위험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부모와의 개방적 커뮤니케이션과 그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위 전반에 걸쳐 보호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연구문제2〉는 여가 시간을 이용한 자발적인 스포츠 활동이나 학교나 기관 등에서 청소년 교육의 일환으로 주최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기 위해서 설정되었다. 전반적으로 스포츠 요인들의 영향력은 커뮤니케이션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였으나,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관찰되었다.

먼저 폭력 행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인들과 커뮤니케이션 요인들의 효과를 감안한 이후에 청소년의 자발적 여가 스포츠 활동의 효과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나, 조직된 스포츠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을수록 폭력 행위 경향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연구문제 2-1). 체력증진 프로그램과 같은 조직되고 기획된 스포츠 활동은 청소년들 내부나 환경의 위험 요인들을 줄이고자 하는 사회적 개입(social intervention)의 한 형태이며, 실제로 우리 정부도 이러한 취지에서 스포츠를 매개로 한 청소년 수련 활동을 확대해 왔다(청소년백서, 2002). 때문에 이러한 기획 의도와는 상반되게 나타난 조직된 스포츠 프로그램 참여와 폭력 행위 사이의 정적 관계는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할 결과이다. 이는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이 그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폭력 행위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위 이탈 행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스포츠 요인들의 영향력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관찰되었다(연구문제 2-2).

## V. 결과 요약 및 논의

감정적이며 도전적인 시기이지만 사회적으로 각종 규제와 기대에 얽매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특정한 환경적, 개인적 조건들이 형성될 때 반사회적 행동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에게 중요한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이 그들의 이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특히 주목한 것은 커뮤니케이션 과 스포츠 활동이 조성하는 환경의 효과였는데, 이는 청소년이 학업 이외의 여가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활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고 많은 이론적 논의들이 이들의 중요성을 지적해 왔기 때문이다(강효민, 2004; Caldwell & Baldwin, 2003).

사회적 지지이론은 부모, 교사, 존경할 만한 성인들의 지지가 청소년을 일탈 가능성에서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Aspy et al., 2004; Kalogerakis, 2003). 그러나 청소년기에는 가족보다는 또래들이 더 중요한 준거 집단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가까운 또래 집단 내에 문제 행동을 이미 경험한 위험청소년들이 많을 경우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일탈 행동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Farrington, 1996; Nathason, 2001; Samples & Aber, 1998).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여가를 가장 많이 지배하고 있으며 문제행동에 기여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력(Kirsh, 2006)과 함께 또래와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고려하였다.

그 결과, 첫째 디지털 미디어, 즉 컴퓨터(인터넷)와 휴대전화 이용은 폭력적 형태를 띠지 않는 유형의 일탈 행위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든 컴퓨터(인터넷) 혹은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미디어의 이용이 왜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걸쳐 일탈 가능성을 상승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속 연구의 관심이 필요하다. 예컨대, 컴퓨터(인터넷) 이용량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조성된 부정적 환경이나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 때문일 수 있으며, 컴퓨터(인터넷)의 영향력 역시 그 사용 동기에 따라서 상이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인터넷) 이용 자체를 위험 요인으로 단언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다만 청소년들이 의사소통이나 교류의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은 또래와의 커뮤니케이션, 특히 또래 위험청소년들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가족, 친지, 선생님이 아닌 기타 성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증가시킬 수 있다. 또래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청소년기의 자아 형성과 성장에 가장 중요하고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지만, 그것이 주로 개인적 미디어인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이루어질 때 부모, 가족, 교사 등이 개입하고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둘째,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 정도나 그에 대한 만족도는 폭력적 행위나 기타 일탈 행위 전반에 걸쳐 강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논의를 입증했다. 즉 부모와 허물없고 솔직한 대화를 자주 나눌수록, 그리고 부모와의 의사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낮을수록 기존 규범과 사회적 기대의 틀을 벗어날 확률

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스미디어 효과를 여과하고 중재할 수 있는 것처럼(Nathanson, 2001), 또래 커뮤니케이션이 잠재적으로 촉진할 있는 일탈 가능성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와의 대화에서 또래들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세심한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위험청소년이 또래 환경에 존재하는 것은 강력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은 폭력적, 비폭력적 일탈행위 모두와 매우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는데, 또래 위험청소년과의 상호작용은 소위 억제효과(inhibitory effects) 보다는 탈억제효과(disinhibitory effects)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청소년기에 일탈 행위를 학습할 수 있는 주요한 사회적 인지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정기원(2007)이 주장한 바와 같이, 비행을 경험한 친구들의 존재와 다양한 일탈 행위 사이의 관계는 일방적 인과관계라기보다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가깝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청소년들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의 설명력은 전반적으로 높았던 반면, 여가 시간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하거나 체계적인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특히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여가 스포츠 활동은 폭력 행위나 지위 일탈 행위 모두와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반해 조직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폭력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는, 조직된 스포츠 활동의 긍정적인 매개 효과를 주장해 온 선행 연구들에 상반되는 것이다(Crabbe, 2000; Mahoney & Stattin, 2000).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매개자로서 기능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스포츠 활동이 청소년 일탈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사회적 개입이 되기 위해서는 스포츠에 내재된 윤리의식이나 민주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거나 존경받는 성인 멘토가 지도를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해 왔다(Hellison & Walsh, 2002; Hellison & Wright, 2003).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위에서 진행되는 체력 증진 프로그램은 일주일이 채 안 되는 단기간의 수련회 형식을 띠며, 교사들이 직접 통제하는 것이 아닌 사설 체육수련시설의 강사들을 통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소년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스포츠 프로그램들이 대체로 일회성에 그치게

되고 그 내용 역시 체계적으로 통제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체력증진 활동 기간은 가정에서 떨어져 또래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에, 폭력이나 여타 비행들이 시험되고 모방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즉 스포츠를 매개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책임 있는 교사나 전문 지도자에 의해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운영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최근 정부가 전국적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은 그 내용과 운영 방식에서 더욱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커뮤니케이션과 스포츠 관련 요인들이 폭력적 형태를 띠는 문제행동과 지위 규범을 위반하는 문제 행동에 상이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는 다양한 유형의 반사회적 행위들 사이의 상관관계는 높을지라도, 반사회적 행위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그에 대한 위험 요인들과 보호요인들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Catalano, Hawkins, Berglund, Pollard, & Arthur, 2002; Jessor, 1998). 종합하자면,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학과 체육학 분야의 이론들을 접목하여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한 시도로서 의의를 가진다. 청소년의 일탈 행동은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원인들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간학문적 접근이 불가피하며 필수적이기까지하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2차 분석(secondary analysis)으로서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몇몇 개념들의 측정지표들이 만족스러운 만큼의 타당성을 갖추기 어려웠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요인 중 또래 위험청소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또래 네트워크 내에 위험청소년의 규모를 간접적인 측정치로 활용하였다. 스포츠 요인 중 체계적으로 조직된 스포츠 프로그램 참여를 측정함에 있어서도 이와 관련된 항목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 다소 제한적이었다. 여가 스포츠 활동의 효과가 전반적으로 미약하게 관찰된 것 역시 측정의 타당성 문제에서 부분적으로 비롯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 집단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 분석 결과를 전체 청소년 집단에 어느 정도 일반화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래 커뮤니케이션 등 청소년 전기의 일탈 행동에 기여하는 위험 요인들 중 일부는 후기도 유사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이 밝혀져 왔지만(Aspy et al., 2004; Farrington,

1996; Kalogerakis, 2003),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신중해야 할 것이며 전기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을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배경이 된 2003년과 현재의 시간적 간극만큼 미디어 환경에서도 많은 변화가 존재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청소년들의 인터넷과 휴대전화 의존도가 더욱 증가해 왔기 때문에, 일탈 행위에 대한 영향력도 확대되었을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커뮤니케이션과 스포츠 요인들이 청소년 전기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가지는 인과적 영향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기존 이론들과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 요인들의 영향력을 논리적으로 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적(cross-sectional) 조사 자료가 가지는 한계를 뛰어 넘지는 못했다. 후속 연구들은 인과적 관계를 더욱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연구 설계를 바탕으로, 특히 커뮤니케이션 요인들이 어떤 경로와 매개 변인들을 통해 반사회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세히 규명해 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일탈 행동에 대한 후속 연구는 커뮤니케이션학, 체육학뿐 아니라 교육학, 발달심리학, 사회학 등 더 다양한 분야의 이론적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의 발달 단계(전기 vs 후기)에 따라 그리고 일탈 행위의 유형에 따라 어떤 요인들이 가장 중요한 함의를 가지는지를 더욱 엄밀히 규명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효민(2004). 정보화 사회, 한국 청소년의 여가행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44권 제2호, pp. 525-535.
- 권이중(1997). 학교폭력의 발생배경과 지도방안. *교육사회학연구*, 제7권 제3호, pp. 84-103.
- 김근영·장근영(2007). 청소년기 인터넷 및 게임 의존도와 우울감 간의 관계: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제3호, pp. 217-243.
- 문화체육관광부(2002). *청소년백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민경훈·정훈교(2001).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스포츠 활동의 역할. *한국 스포츠리서치*, 제12권 제3호, pp. 363-374.
- 민영·김성태(2008). 인터넷 미디어 이용에 따른 정보격차 현황과 해결방안. 서울: 신문발전위원회.
- 박희숙·하정희(2007).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수준과 정서적 자율성이 청소년의 분노표현방식과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제2호, pp. 89-110.
- 배규한·이창호(2008). 청소년의 세대특성 및 세대간 소통방식에 관한 연구: 2008년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책 보고서.
- 성윤숙(2006).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 및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7권 제2호, pp. 291-321.
- 이미리(2007). 우리나라 청소년의 여가 실태와 활성화 방안. *한국의 청소년문화*, 제9권, pp. 432-449.
- 이성식(2007).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의 청소년비행에의 영향: 청소년패널자료의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제2호, pp. 159-181.
- 정기원 (2007). 비행친구: 청소년 비행의 원인인가, 아니면 결과인가? *청소년학연구*, 제14권 제1호, pp. 213-236.
-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Vol. 30, pp. 47-87.
- Agnew, R. (2001). Building on the foundation of General Strain Theory: Specifying the types of strain most likely to lead to crime and delinquency.

-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 38, pp. 319-361.
- Anderson, C. A., Berkowitz, L., Donnerstein, E., Huesmann, L. R., Johnson, J. D., Linz, D., Malamuth, N. M., & Wartella, E. (2003). The influence of media violence on youth.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Vol. 4 No. 3, pp. 81-110.
- Aspy, C. B., Oman, R. F., Vesely, S. K., McLeroy, K., Rodine, S., & Marshall, S. (2004). Adolescent violence: The protective effects of youth asset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Vol. 82, pp. 268-279.
- Bandura, A. (2002). Social cognitive theory of mass communication. In J. Bryant and D. Zillmann (Eds.), *Media effects: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pp. 121-153). Mahwah, NJ: Lawrence Earlbaum.
- Brewer, D. D., Hawkins, J. D., Catalano, R. F., & Neckerman, H. J. (1995). Preventing serious, violent and chronic juvenile offending. In J. C. Howell, B. Krisberg, J. D. Hawkins, & J. J. Wilson (Eds.), *A sourcebook: Serious violent & chronic juvenile offenders* (pp. 61-141). Thousand Oaks, CA: Sage.
- Brezina, T., Piquero, A. R., & Mazerolle, P. (2001). Student anger and aggressive behavior in school: An initial test of Agnew's Macro-level strain theor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 38, pp. 362-386.
- Caldwell, L. L., & Baldwin, C. K. (2003). A serious look at leisure: The role of leisure time and recreation activities in positive youth development. In F. A. Villarruel, D. F. Perkins, L. M. Borden, & J. G. Keith (Eds.), *Community youth development: Programs, policies, and practices* (pp. 181-200).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Catalano, R. F., Hawkins, J. D., Berglund, M. S., Pollard, J. A., & Arthus, M. W. (2002). Prevention science and positive youth development: Competitive or cooperative framework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 31, pp. 230-239.
- Cense, M., & Brackenridge, C. H. (2001). Temporal and developmental risk factors for sexual harassment and abuse in sport. *European Physical Education Review*, Vol. 7 No. 1, pp. 61-79.
- Chaffee, S. H., McLeod, J. M., & Atkin, C. K. (1971). Parental influence on

- adolescent media us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14, pp. 323-340.
- Coakley, J. (2002). Using sports to control deviance and violence among youths: Let's be critical and cautious. In M. Gatz, M. A. Messener, & S. J. Ball-Rokeach (Eds.), *Paradoxes of Youth and Sport* (pp. 13-30). Albany, NY: SUNY Press.
- Crabbe, T. (2000). A sporting chance?: Using sport to tackle drug use and crime. *Drugs, Education, Prevention and Policy*, Vol. 7, pp. 381-391.
- Crosset, T. W. (1999). Male athletes' violence against women: A critical assessment of the athletic affiliation, violence against women debate. *Quest*, Vol. 15, pp. 244-257.
- Danish, S. J., Petitpas, A., & Hale, B. D. (1995). Psychological interventions: A life development model. In Murphy, S.M (Ed.), *Sport psychology interventions* (pp. 19-38).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Elliott, D. S., Hamburg, B. A., & Williams, K. R. (1998). Violence in American schools: An overview. In D. S. Elliott, B. S. Hamburg, & K. R. Williams (Eds.), *Violence in American schools* (pp. 3-3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spelage, D. L., & Swearer, S. M. (2003). Research on school bullying and victimization: What have we learned and where do we go from here? *School Psychology review*, Vol. 32, pp. 365-383.
- Farrington, D. P. (1996).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youth crime*. York, UK: York Publishing Services.
- Ferrer-Wreder, L., Stattin, H., Lorente, C. C., Tubman, J. G. & Adamson, L. (2004). *Successful prevention and youth development programs: Across borders*. New York: Kluwer Academic.
- Fleisher, S. J., & Avelar, C. (1995). Evaluation of a Judo/community organization program to treat pre-delinquent Hispanic immigrant early adolescent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Vol. 17 No. 2, 237-249.
- Futrell, M. H. (1996). Violence in classroom: A teacher's perspective. In A. Hoffman (Ed.), *Schools, violence, and society* (pp. 3-19). Westport, CT: Praeger.

- Garrison, K. C. (1965). *Psychology of adolescence* (6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Garry, J. S., & Morrissey, S. L. (2000). Team sport participation and risk-taking behaviors among a biracial middle school population. *Clinical Journal of Sport Medicine, Vol. 10*, pp. 185-190.
- Gottfredson, G. D., & Gottfredson, D. C. (1985). *Victimization in schools*. NY: Plenum Press.
- Hartmann, D. (2003). Theorizing sport as social intervention: A view from the grassroots. *Quest, Vol. 55*, pp. 118-140.
- Haveman, R., & Wolfe, B. (1994). *Succeeding generations: On the effects of investment in childre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Hawkins, J. D. Farrington, D. P., & Catalano, R. F. (1998). Reducing violence through the schools. In D. S. Elliot, B. A. Hamburg, & K. R. Williams (Eds.), *Violence in American schools* (pp. 188-21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llison, D., & Walsh, D. (2002). Responsibility-based youth program evaluation; Investigating the investigations. *Quest, Vol. 54*, pp. 292-307.
- Hellison, D., & Wright, P. (2003). Retention in an urban extended day program: A process-based assessment.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Vol. 22*, pp. 369-381.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lbrook, R. A., & Hill, T. (2005). Agenda-setting and priming in prime time television: Crime dramas as political cues. *Political Communication, Vol. 22*, pp. 277-295.
- Hoover, N. (1999) *National survey: Initiation rites and athletics for NCAA sports teams*. New York: Alfred University.
- Howard, K. A., Flora, J., & Griffin, M. (1999).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in schools: State of the science and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pplied & Preventive Psychology, Vol. 8*, pp. 197-215.

- Hupcey, J. E. (1998). Clarifying the social support theory-research linkag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27*, pp. 1231-1241.
- Jessor, R. (Ed.). (1998). *New perspectives on adolescent risk behavio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logerakis, M. G. (2003). Adolescent violence in America: A historical perspective. *Adolescent Psychiatry, Vol. 27*, pp. 3-28.
- Kim, N. S. (2007). *Program theory of sport-related intervention: A multiple case study of sport-related youth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ustin, TX.
- King, C. M. (2000). *Trial by fire: A study of initiation rituals in English s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Loughborough University.
- Kirsh, S. J. (2006). *Children, adolescents, and media violence: A critical look at the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Mahoney, J. L., & Stattin, H. (2000). Leisure activities and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r: The role of structure and social context. *Journal of Adolescence, Vol. 23*, pp. 113-127.
- McWhirter, J. J., McWhirter, B. T., McWhirter, A. M., & McWhirter, E. H. (2004). *At-risk youth: A comprehensive response* (3rd ed.). Pacific Grove, CA: Thomson.
- Nathanson, A. I. (2001). Parents versus peers: Exploring the significance of peer mediation of antisocial television. *Communication Research, Vol. 28 No. 3*, pp. 251-274.
- Patterson, G. R., Reid, J. B., & Dishion, T. J. (1992). *Antisocial boys*. Eugene, OR: Castalia.
- Samples, F., & Aber, L. (1998). Evaluations of school-based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In D. S. Elliot, B. A. Hamburg & K. R. Williams (Eds.), *Violence in American schools* (pp. 217- 25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mith, S. L., Nathanson, A. I., & Wilson, B. J. (2002). Prime-time television: Assessing violence during the most popular viewing hours.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52 No. 2*, pp. 84-111.

- Smith, A., & Waddington, I. (2004). Using 'sport in the community schemes' to tackle crime and drug use among young people: Some policy issues and problems. *European Physical Education Review, Vol. 10*, pp. 279-298.
- Sparks, G. G., & Sparks, C. W. (2002). Effects of media violence. In J. Bryant and D. Zillmann (Eds.), *Media effects: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pp. 269-285). Mahwah, NJ: Lawrence Erlbaum.
- Tapscott, D. (1998). *Growing up digital: The rise of the net generation*. New York: McGraw-Hill.
- Wallace, J. M., & Forman, T. A. (1998). Religion's role in promoting health and reducing risk among American youth. *Health Education and Behavior, Vol. 25*, pp. 721-741.
- Warr, M. (2002). *Companions in crime: The social aspects of criminal condu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tson, D. L., Newton, M., & Kim, M. (2003). Recognition of values-based constructs in a summer physical activity program. *The Urban Review, Vol. 35 No. 3*, pp. 217-232.
- Youniss, J., & Haynie, D. L. (1992). Friendship in adolescence.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Behavioral Pediatrics, Vol. 13 No. 1*, pp. 59-66.
- Zeijl, E., te Poel, Y., du Bois-Reymond, M., Ravesloot, J., & Meulman, J. (2000). The role of parents and peers in the leisure activities of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 32 No. 3*, pp. 281-302.

## ABSTRACT

### The Impact of Digital Media Uses,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nd Sport-Related Activities upon Early Adolescents' Anti-Social Behavior

Kim, Nam-Su\* · Min, Young\*\*

In the life cycle, adolescence is the period when people experience significant biolog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changes. At the same time, adolescents are required to follow strict social norms and rules at within school, the home, and other social contexts. Thus, many adolescents encounter a great deal of internal and external tension and conflict, and some become engaged in anti-social behaviors under certain environmental conditions. This study explored how various communication and sport-related factors influence early adolescents' violent or non-violent deviancies. The analysis of the first-year data from the Korea Youth Panel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since 2003, suggested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among various communication factors, variables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ppeared to be significant in explaining early adolescents' problematic behavior. Specifically, interactions with at-risk peers functioned as a significant risk factor for both violent and non-violent behavior. On the contrary, parental communication functioned as a protective factor; how openly the youth talked with their parents and how positively they evaluated those interactions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likelihood of anti-social behavior. Secondly,

---

\* Full-Time Lecturer, Division of International Sport & Leisur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Korea University

uses of digital media, such as the Internet and mobile telephone, positively contributed to such non-violent deviancies as drinking, smoking, absenteeism, and running away from home. Thirdly, the overall impact of sport-related activities was not so significant. However, participating in organized forms of sport-mediated youth programs appeared to increase violent anti-social behavior, disconfirming previous theoretical expectations.

**Key Words** : early adolescence, antisocial behavior, risk factors, protective factors, digital media uses,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t-risk peers, parental communication, sport

투고일 : 6월 15일, 심사일 : 7월 16일, 심사완료일 : 8월 7일

